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꾼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길에 서 있던 한 사람(a man)이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시몬의 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막 15:21).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를 언급합니다(롬 16:13). 시몬은 ‘지나가는 행인 1’로 남지 않았고, 바울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을 시몬은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와 군사 행동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a man), 구레네 시몬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구원의 여정에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오늘 내가 ‘a man’,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놓인 징검다리 하나만큼의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 징검다리 하나만큼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허락하신 만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겠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다.

은수자 마카리우스가 꿈에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거듭 되는 간청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간청이 반복되자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가리키며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나는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 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까?
- ②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